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조 혜 지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조 혜 지

인 준 서

조혜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논문개요

화장은 자신을 꾸미는 일이다. 과거 고대부터 메이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변함없는 그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 메이크업은 그 문화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인간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그 부가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더욱 세분화 되고 급성장하는 문화산업의 발달로 뷰티산업이 성장하면서 메이크업은 패션, 광고, 연극, 영화, 공연예술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었다. 1990년대의 전체적인 메이크업의 경향은 과학문명과 산업 발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반발로 자연으로부터의 회귀를 추구하며 자연스럽고 단순화된 내추럴 메이크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야기되는 정신적인 황폐함으로 인해 동양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오리엔탈리즘 메이크업이 등장하게 된다. 현대 메이크업에 등장하는 오리엔탈리즘의 배경이 되는 것은 획일화된 유행적 요소가 아니고, 과거의 오랜 동양의 역사와 그 고유의 독특한 화장 양식이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의 자연 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이미지는 동양의 평면적인 형태와 다양한 색상을 특징으로, 정통성을 고수하면서 서양미와 조화되어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이미지를 재탄생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메이크업과 오리엔탈리즘의 일반적 개념을 밝히고, 서양의 시대별 메이크업의 역사와 동양의 대표적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전통 메이크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예술적 영역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과 그 유형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관해서도 요약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각 나라의 메이크업 이미지와 기법을 응용하고 보다 아트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오리엔탈리즘과 현대 메이크업과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메이크업이 보다 창조적인 예술로서 재탄생가능한 분야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 논문의 의의와 내용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직접 제작한 작품을 실어 설명하고, 제4장을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 1. 메이크업(MAKE UP) 4
 - 1)메이크업(화장)의 정의 4
 - 2)메이크업의 목적 5
 - 3)메이크업의 역사 6
 - 가)서양 6
 - 나)동양 20
- 2. 아트 메이크업(ART MAKE UP) 37
 - 1)아트 메이크업의 개념과 특징 37
 - 2)아트 메이크업의 유형 40
- 3.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45
 - 1)오리엔탈리즘의 일반적 개념 45
 - 2)오리엔탈리즘 패션과 메이크업의 개념 47
- 4. 오리엔탈리즘 메이크업 -나라별 특성 49
 - 1)한국 50
 - 2)중국 51
 - 3)일본 52

4)인도 52

Ⅲ.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1. 작품 제작 및 설명 53

IV. 결론 및 제언 6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인도 메이크업의 장식 표현 기법	53
<작품2> 드로잉과 오브제의 기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55
<작품3> 동양적인 선과 서구적인 입체감의 조화	57
<작품4> 메이크업에 바디페인팅의 효과를 살린 작품.	59
<작품5> 일본 기모노 의상의 색감을 이용한 메이크업	61
<작품6> 중국과 일본의 분장적인 색감과 인도의 입체적인 장식 효과를 이용한 작품	63
<작품 8> 바디 페인팅의 색채 표현기법	65
<작품 7> 한국의 동양화의 여백의미를 살려 재구성한 디자인	67

그림 목 차

〈그림 1〉 이집트의 눈화장	7
〈그림 2〉 클레오파트라 메이크업	7
〈그림 3〉 테다바라(Theeda Bara)	11
〈그림 4〉 폴라 네그리(Pola Negri)	11
〈그림 5〉 클라라 보우(Clara Bow)	12
〈그림 6〉 글로리와 스완슨(Gloria Swanson)	12
〈그림 7〉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14
〈그림 8〉 진 할로우(Jean Harlow)	14
〈그림 9〉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	15
〈그림 10〉 베로니카레이크(Veronica Lake)	15
〈그림 11〉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16
〈그림 12〉 트위기(Twiggy)	16
〈그림 13〉 팝가수 마돈나	19
〈그림 14〉 브룩 쉘즈	19
〈그림 15〉 크리스찬 디오르, 까르띠에	20
〈그림 16〉 중국 경극 분장	24
〈그림 17〉 크리스찬 디오르, 겐조	24
〈그림 18〉 일본의 가부키 화장	28
〈그림 19〉 일본의 가부키 화장	29
〈그림 20〉 영화 'Devdas' 인도 유명배우 (Aishwaraya Rai)	30
〈그림 21〉 인도의 메이크업	32
〈그림 22〉 백분	35

<그림 23> 한국의 조선시대 춘향이	36
<그림 24> 슈에무라 131번째 모드 메이크업	41
<그림 25> 2011년 여성동아 8월호	41
<그림 26> 환타지 메이크업	4
<그림 27> 환타지 메이크업	43
<그림 28> 바디 페인팅	44
<그림 29> 오리엔탈 문양을 이용한 바디 페인팅의 예	45
<그림 30> 2007 한국의 텍스타일디자인공모전 대상작	49
<그림 31> 봉황문 단청	50
<그림 32> 일본의 전통문양	51
<그림 33> 페이즐리 문양	52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1세기 전 세계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인터넷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급성장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 간의 정보 문화의 교류도 손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는 문화 다원주의¹⁾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에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동양이 정치, 경제 등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게 되고, 포스트모더니즘²⁾과 같은 문화 요인과 결합하면서 동양풍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문화 사조로 21세기 문화의 주된 흐름 중의 하나의 조류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부상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세대에 따라 예술의 장르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식에서 다원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오리엔탈리즘은 이국적인 취미와 동방세계의 동경이 20세기 후반부터 웰빙(well-being)이라는 자연주의 즉, 환경적인 문화의 흐름으로 인해 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 이후 인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이념이 강한 젊은이들의 문화 전반에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오리엔탈리즘은 TV나 영화, 가구, 의상, 인테리어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오리엔탈적인 요소와 더불어 넓게 확산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외

1) 어느 하나의 문화가 우월하지 않고, 다양한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 서구문화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동양문화 또는 제3세계 문화도 동등하다는 뜻.

2)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

유명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컬렉션(Collection)에 동양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선보임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은 21세기 패션의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³⁾

패션과 뷰티 산업은 가장 빠른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로써, 복식은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 미의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표출시키는 대표적인 예술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토털패션 지향으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메이크업과 패션의 조화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⁴⁾

Starr는 “지구상의 모든 종족 중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종족은 있으나, 장식을 하지 않은 종족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의복의 기원을 장식설에 근거를 두었다.⁵⁾ 이는 곧, 인간의 신체나 얼굴을 꾸미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 되었으며 패션의 역사보다도 앞서 있었음을 추측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후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세분화된 패션의 발전에 비해 메이크업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고 그 범위가 좁았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문화 산업과 예술의 발달로 뷰티산업도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이 현실이 되었다.

기존의 획일화된 이상적 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기 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져 예술과 패션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이는 중요시 여기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매체가 발달한 현 시점에서 화장(make-up)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배우, 모델, 가수 등의 외모를 이미지나 배역에 맞도록 재창조 하기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화장 분야는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문화 분야보다도 변화의 흐름은 주시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3) 이경은 “오리엔탈리즘 패션의 컬러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p1

4) 김교희,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p.1

5) 박옥련, 복식과 인간, 경성대학교 출판부, p.22

연구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창의적인 표현 행위 또한 멈추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는 대중을 비롯하여 메이크업 분야의 종사자와 전문인들에게 보다 높은 관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그 이론적 토대와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대에서의 오리엔탈리즘과 오리엔탈리즘 메이크업의 특징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 문화, 예술, 패션, 메이크업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의 문헌 -국내외의 선행 연구결과와 단행본,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 및 발표 자료, 각종 간행물과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의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메이크업의 기본 개념과 그 생성의 역사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서양 메이크업의 역사와 동양의 각 나라별 메이크업의 특징을 중국, 일본, 인도, 한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 아트 메이크업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와 기법을 응용하여 작품화시켜 표현해 봄으로써 그 무한한 창조성과 예술성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향후 오리엔탈리즘의 발전 방향과 메이크업의 예술적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메이크업 (MAKE UP)

1) 메이크업(화장)의 정의

17세기초 영국의 시인 리차드 크라슈(Richard Crashou)에 의해 ‘메이크업’이란 말이 처음 사용 되었고, ‘페인팅’은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토일렛’은 화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치장을 의미하며, ‘마키야주’는 분장을 의미하는 연극 용어에서 유래하였다.

현대적인 의미의 메이크업의 개념은 여배우들의 화장효과가 중시된 미국의 할리우드 전성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메이크업 헤어 연출가 집안인 웨스트모어(Westmore)家에서 집필한 THE BEAUTY BOOK에 의하면 미는 우연히 생성될 수 없고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메이크업은 자기 자신의 심리학 이라고 했으며, 슈에무라(Shu uemura)는 메이크업은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밝고 생산적인 것이라고 했다.⁶⁾

또한, 화장은 우리나라에서 개화기 이후 널리 사용된 외래어로서 가화(假化), 가식(假飾), 꾸밈 등을 지칭한다. 화장(make up)에 해당하는 순수한 한국어는 가리키는 의미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장식(粧飾, 裝飾), 단장(端裝, 丹粧), 야용(冶容)이 있다.⁷⁾

6) 천지연외, FACE IN MAKE UP,청구 문화사, p.8

7) 임미애외, 화장 문화사, 신정, p.11

2) 메이크업의 목적

화장은 자신을 꾸미는 일이다. 또한 화장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자신의 용모를 돋보이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태고 적부터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욕구를 다양하게 표출해 왔다. 이러한 본능이 화장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화장이 신분, 계급, 종족, 남녀 성별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는 신분표시설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개사회를 보면 부족의 추장은 매우 화려한 장신구나 문신을 하고 있으며 종족에 따라서도 매우 개성 있는 치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분에 따른 의복이나, 장신구등이 발달한 점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귀족이나 상류층들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의상과 장식으로 멋을 부리고 꾸민 것과 같이 현대에도 부유층은 명품이나 고가의 장신구들을 소유하고 자신을 과시하려 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공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또 자신을 보호하거나 위장하기 위한 치장이 미화 수단으로 발전했다는 보호설이 있다. 부족 내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색을 칠하거나 나뭇잎 등을 몸에 달았던 것과 고대 이집트의 여성들이 태양빛과 벌레들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두덩에 발랐던 푸른색이 눈 화장으로 발전되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공해나 태양빛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품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8) <http://blog.naver.com/idal15511/60057275990>

마지막으로 주술적,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얼굴에 칠을 하는 관습은 지금도 미개발 민족 간에 남아있고 질명이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쫓기 위해서 얼굴이나 몸에 색칠을 하는 관습도 계속 남아 있다.

인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본능적인 과시욕구가 있다. 특히 여성은 인류가 농경사회로 접어들고 정착생활을 함에 따라 남녀 간에 노동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아름다운 용모가 중시됨에 따라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에 대한 필요가 더욱 커졌으며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남보다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은 남녀를 막론하고 더욱 다양하고 섬세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⁹⁾

현대에 이르러 화장(MAKE UP)은 그 문화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인간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그 부가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결국 메이크업은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개성을 비롯한 정신적인 내면의 특성을 얼굴에 표현하는 생산적인 차원의 과학이자 창의적인 예술인 것이다.

3) 메이크업의 역사

가) 서양

인류의 화장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집트의 화장법은 초기에는 강한 자연으로부터의 신체 보호의 목적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사용되었다.

9) 천지연외,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2001, p. 11



(그림 1) 이집트의 눈화장



(그림2) 클레오파트라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idal15511/60057275990>)

고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4000년경에 이미 미용실이나 향료 제조공장이 번성하였고, 메이크업의 기술도 발달하였다. 그러나 계급사회로 변화하면서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상류층의 여성들의 경우는 헤나를 사용하여 손이나 발을 염색하거나 가슴과 관자놀이도 푸른색 안료를 사용하여 액센트를 주었다. 기원전 50년경 클레오파트라의 시대는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는데, 눈꼬리 부분을 길게 연장하여 물고기 모양 혹은 독수리의 눈매 모양으로 그렸다. 눈썹과 속눈썹은 안티몬으로부터 만들어진 콜멕이라는 먹으로 검은 빛으로 길게 칠했다. 이러한 화장법은 오늘날에도 아이라인과 아이섀도를 이용해 눈매를 시원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로 이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으나 점차 신체 보호 또는 주술적인 목적 외에 장식의 목적으로 발전하여 이집트의 화장은 미용역사의 시초가 되었다.

코스메틱코스(cosmetikos) ‘치장하다’라는 그리스어에서 화장품을 지칭하는 코스메틱(cosmetic)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리스 여인들은 하얀 피부를 선호해서 백납성분

의 안료를 얼굴에 사용하고 다홍색의 안료로 붉은 입술을 강조하였으며, 코에 명암을 넣거나 적갈색이나 녹색, 회색 새도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의 화장품과 화장술을 애용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2세기경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의 보석, 진주, 먼과 중국의 비단이 서양에 전파¹⁰⁾되기 시작한 이래로 서양의 복식과 직물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리고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에서 동양의 비단을 처음 접한 이후 카프탄스타일(caftan style)¹¹⁾이 나타나게 되었다. 11-13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으로 동서양의 문화교류도 활발하여 유럽에서 거울과 화장도구가 사용¹²⁾되었고, 14-15세기 르네상스시대에는 서구의 근대화로 아시아에서 수입한 염료와 염색 기술은 유럽의 염료개발에 도움을 주어 보다 다양한 색채발달에 영향을 미쳤다.¹³⁾

의학과 학문이 발전되면서 화장과 미용에 관한 학문이 의학으로부터 분리 되었고, 교회의 영향을 받아 억압되었던 화장술은 11세기 이후 동양으로부터 전개된 화장품, 향신료로 조금씩 행해지게 되다가, 14세기 중반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르네상스의 전성기인 16세기는 개인주의와 향락주의 영향으로 상류층에 의해 과도한 화장술이 사용되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 때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화장품을 사용하였는데 수은이 들어간 로손이나 납과 식초를 혼합한 분 등을 쓰거나 이마에 점맥을 그려 넣는 등 지나친 화장수로 피부를 심하게 훼손하기도 하였다.

17세기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설립과 18세기의 산업 혁명으로 동방풍의 직물 생산이 가능해져 동양의 선과 색채의 이국적인 취향이 상류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17세기 바로크 시대와 18세기 로코코 시대에는 매우 두텁고 하얗게 피부 표현을 하던 시기로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과도하고 인위적인 화장이 유행이었다. 그러

10)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교문사, 1997, p.89

11) 터키나 아랍 사람들이 즐겨입는 의상으로 허리통이 헐렁하며 소매가 긴 의상을 말한다.

12) 천정향, “오리엔탈리즘이 메이크업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13) 오리엔탈 특에 표현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인인체예술학회지, 2008, 제9권 제1호,

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자연스러운 미의 강조가 중요시 되어, 여성들의 전유물로서 화장술이 자리 잡고 비누의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1866년 산하아연의 발견으로 안전하고 새로운 성분의 화장품이 유럽과 미국에 퍼졌으며, 진한 화장은 무대 화장에 한정되었다.

역사적으로 비잔틴 제국과 십자군 전쟁 등을 통하여 수세기 동안 동양과 서양이 문화를 교류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왔다. 근대 이후 서양이 세계사를 주도하면서 동양과 동양 문화가 하위문화로 밀려나게 되고 서구가 이성적, 우월적 존재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동양이 정치, 경제 등 세계사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다른 문화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같은 문화 요인과 결합하여 동양풍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문화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패션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20세기를 기점으로 서구패션에서 동양적 이미지가 다양성을 띄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에스닉 (ethnic)과 레트로(retro) 패션이 대중화되어 유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반전운동의 사회혼란을 가져 왔으며, 이는 신좌파 히피(hippie)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벌이면서 동양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인도와 러시아, 터키 등의 동양적 요소가 복식에도 도입되었다.

패션에서 오리엔탈리즘의 룩(look)은 에스닉 스타일로 크게 분류되며 여기에 주로 사용되던 칼라는 녹색, 자색, 금색과 같은 진하면서 화려하고 환상적인 색을 사용하였다.

오리엔탈리즘은 패션 디자인에 있어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일으키며 표현되고 있는데, 20세기 미국, 영국과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중국풍이 널리 전파 되었고, 일본은 1856년 이후 표현주의와 아르누보를 통해 패션스타일이 많이 알려졌다. 중국의 치과오와 일본의 기모노 스타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현대 패션에서 타문화와 혼합하여 신비롭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로 재창조 되어 이미지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1900년대를 시작으로 서양의 메이크업의 특징을 스타들의 이미지를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00~1909년

20세기 초는 19세기의 영향으로 안한 듯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지속 되었다.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으로 오리엔탈 붐이 일어나 동양적인 신비스럽고 강한 색조가 인기를 끌게 되자 메이크업의 색조도 풍부해지기 시작 하였다. 또한 눈을 옆으로 길어보이게 하는 아이라인, 눈썹과 눈 사이에 황색분이나 강렬한 색을 바르는 동양적인 분위기의 눈 메이크업 등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밝은 색이 인기를 끌게 되어 핑크와 붉은 입술 메이크업이 등장 했으며 속눈썹을 위로 말아 올리고 눈을 검게 칠하는 기법의 눈 메이크업이 유행 하였다. 이런 메이크업은 아직 대중 여성들에게까지는 큰 호응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일부 선도적인 여성들에 의해 시도 되었다.

1910~1919년

1910년대 메이크업은 대중 스타의 스타일이 일반대중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여성들에게로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이시대의 대표적인 화장법은 무성영화 시대 최고의 배우였던 '테다바라(Theda Bara)'와 '폴라 네그리(Pola Negri)'가 마스크라를 발라 눈매를 더욱 신비롭고 그윽하게 표현하여 관능적인 매력을 나타내면서 유행을 시켰다.

이 시기는 대중스타의 영향으로 메이크업의 열광은 사교계 여성에서 판매직 여성에게까지 강좌를 들을 정도였으며, 주요 상점과 호텔에서는 여성고객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탈의실에 화장품을 배치하였다. 화장품의 대량생산이 합법화되고, 미용 클리닉과 성형 수술이 성행하였으며, '뷰티 전문가'라는 직업을 탄생시켰다.



(그림 3) 테다바라(Theda Bara)



(그림 4) 폴라 네그리(Pola Negri)

(blog.naver.com/rosvivew.nnn?blogid=white_suha...)

1920~1929년

영화가 본격적인 대중 오락문화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스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1920년대로 이들의 메이크업 형태나 패션은 물론 이고 심지어 행동과 태도까지 일반인들의 추종을 받을 만큼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로는 ‘클라라 보우(Clara Bow)’, ‘글로리아 스완슨(Gloria Swanson)’을 들 수 있다. 클라라 보우는 창백한 얼굴, 형클어진 곱슬머리, 헤어밴드 아래로 크고 검게 화장한 게슴츠레한 눈, 그리고 빨간 앵두 입술로 성적매력을 발산하였다. 글로리아 스완슨은 영화에서 세련된 도시 여성의 역할을 하면서 초생달처럼 굵은 눈썹, 깨끗하고 섬세한 윤곽이 뚜렷한 입술, 완벽한 아이 메이크업, 깃털 같은 속눈썹을 달았고, 특히 볼에 찍힌 애교점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그녀를 대표하는 것이 되었다. 이 시대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전까지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인위적인 아름다

움을 만드는 것이었다. 유명한 여배우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의 영향으로 눈썹을 뽑아서 아주 가느다랗고 실날 같은 초생달 눈썹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눈썹을 연필로 그렸으며, 아이섀도는 비취색, 초록색, 갈색, 검정색 등으로 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인조 속눈썹을 달았고, 콜(Khol)로 아이라이너를 그렸으며 볼에는 둥그렇게 붉은 메이크업을 했다.



(그림 5) 클라라 보우(Clara Bow)



(그림 6) 글로리아 스완슨(Gloria Swanson)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hana2001...)

1930~1939년

경제적 침체라는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낙천주의가 확대되면서 영화는 중요한 대중 오락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영화 속 스타들의 아름다움은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상형이 되었다. 대표적인 스타로는 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하는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의

ne Dietrich)', 글래머러스한 금발 미녀 이미지의 '진 할로우(Jean Harlow)'와 '존 크래포드(Joan Crawford)'등을 들 수 있다.

그레타 가르보는 눈썹을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뽑아 가늘고 둥근 아치형으로 그렸으며, 눈썹 부분의 하이라이트를 강조하여 검은색과 회색으로 음영을 강조한 아이 홀은 움푹 꺼진 눈을 강조하였다. 마릴린 디트리히의 가는 눈썹과 야윈볼, 존 크래포드의 나비형태의 뚜렷하게 강조된 입술 등의 모습이 당시 여성들의 메이크업과 패션의 이미지를 주도하였다. 진 할로우, 메이웨스트 등은 여성의 에로틱한 면의 새로운 이미지로 매혹적이며 성적인 여성스러운 몸매를 가진 여성을 뜻하는 '글래머러스'란 단어도 생겨났다.

1930년대의 메이크업은 1920년대와는 다르게 변화된 새로운 이미지의 여성을 만들었는데, 더 진하고 숙련된 기술로서 성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얼굴을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른 뒤 아이새도는 눈이 움푹 들어가 보이도록 흰색 하이라이트와 검정색, 청색 아이새도를 사용하였다.

눈썹은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뽑고 가늘고 기교적으로 그렸으며 인조눈썹과 마스크라를 더하여 강조하였다. 입술은 오무라진 형태보다는 연필을 이용하여 크고 선명하게 그렸으며 반짝이는 빨간색의 립스틱이나 립투즈로 안을 칠해 강조했다. 빨간색 립스틱에 맞추어 빨간색 에나멜을 같이 바르는 것도 유행하였다.



(그림 7)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그림 8) 진 할로우(Jean Harlow)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hana2001...)

1940~1949년

1940년대에는 전쟁 중인 군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남성들에게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들의 이미지가 이상적인 스타일로 등장 하였으며,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여성의 모습을 동경하였다. 영화배우 중에는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 ‘존 크로포드(John Crawford)’, ‘캐서린 헵번(Katharine Hepburn)’이 이 시대의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메이크업으로 대표적이다. 메이크업도 가늘고 신비스러운 긴 눈썹 대신에 두껍고 또렷하게 곡선적인 형태를 띠는 눈썹으로 관능미와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그 이전의 뚜렷한 입술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두툼하고 여성적인 곡선 형태로 입술은 크게 그려 풍만해 보이며 반짝거리는 빨간 입술이 유행하였다. 눈썹은 아이펜슬로 눈꼬리 부분을 치켜 올려 표현한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눈꼬리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은 195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행되었다.



(그림 9)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 (그림 10) 베로니카 레이크(Veronica Lake)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ubet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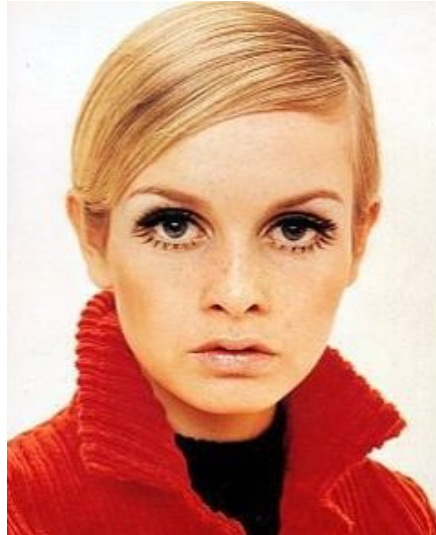
1950~1959년

1950년대 메이크업은 남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여성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 이 됨에 따라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1950년대까지는 여전히 영화스타들의 메이크업이 그 시대 유행을 주도하였다. ‘오드리 햅번’은 짧은 헤어스타일과 함께 소녀 같은 이미지의 굵은 눈썹메이크업을 유행시켰다. ‘소피아 로렌(Sophia Lauren)’은 굵고 각진 검은색의 눈썹과 아이라인을 강하게 치켜올린 스타일로 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한 섹스 심볼로 널리 알려진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가 등장한 때이기도 하다. 마릴린 먼로는 성적 매력을 가진 청순하며 순종적인 나약한 이미지로 밝은 피부톤에 약간 인위적인 메이크업을 했다. 눈썹산을 바깥쪽으로 치켜 올리고, 아이 홀에 살구 색과 밝은 브라운 톤으로 음영을 주고 눈 중앙에 밝은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줌으로써 입체감을 강하게 주었다. 또한 눈바깥쪽으로 길게 붙인 속눈

썸, 보트형의 빨간색 입술 메이크업, 입가의 애교점 등으로 섹시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는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그림 11)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그림 12) 트위기(Twiggy)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hana2001...)

1960~1969년

메이크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화가 1950년대까지는 이상적인 여성미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모방의 시대였다면 1960년대 이후부터는 미에 대한 기존의 가치개념의 변화와 함께 메이크업은 사회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는 미의 표출수단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섹스 코드로 불려 졌던 브릿지 바르도 스타일은 눈 메이크업을 진하게 강조하고 입술라인을 바깥쪽으로 그려 뽀루뽀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했다. 틴에이저들의 우상으로 등장한 모델 트위기(Twiggy)는 짧게 깎은 머리에 인형같이 커다랗게 강조된 눈, 거의 띄지않게 그려진 조그만 입과 장밋 빛 볼, 가짜 주근깨, 분 화장을 안한 윤택한 피부, 작은 키의 왜소한 체구 등 전통적인 미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전통과 다른 새로

움이나 특이함이 그녀를 새로운 스타로 만들었다. 미용과 패션 산업이 거대화 되면서 영화 못지않게 잡지나 TV에 등장하는 모델의 역할과 가치가 갈수록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문 모델들이 새로운 미를 선도하는 스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체적으로 1960년대의 메이크업은 입술색상과 눈썹색상을 최대한 흐리게 표현하고 눈을 강조했다. 눈꺼풀에는 두꺼운 선을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주었으며, 인조 눈썹도 이중삼중으로 사용했다. 또한 꿈과 같이 환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가면과 같은 장식적인 환타지 메이크업이 등장했다. 새, 동물, 나비, 꽃이나 기하학적 무늬를 인위적이고 장식적으로 그린 메이크업이 상업화된 패션산업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1970~1979년

1960년대에 과장되게 표현하던 메이크업 형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얼굴 전체의 풍부한 색조를 부여하는 이미지로 변하면서 복고풍의 우아한 여성의 미를 과시하였다. 미국배우 파라 포셋(Farrah Fawcett)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1970년대에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이라이너와 눈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게 변하였으며, 눈썹은 정리를 하되 역시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도록 했고 아이홀을 강조하는 눈 메이크업을 했다. 볼 터치는 자연스러워졌으며, 입술은 다양한 색상이 유행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에는 황갈색의 입술이 유행했고 갈수록 진하고 강한 색이 되었다. 눈화장은 주로 브라운이나 그레이, 어두운 그린 등의 새도 색상으로 표현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광택있는 볼 메이크업과 입술이 유행했다. 립스틱위에 바르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립글로스가 널리 애용되었다. 한편 핑크족들의 메이크업은 눈언저리를 멍든 모습을 그리거나 눈 주위에 검은 웅덩이 모양으로 선을 여러 개 긋고 눈 꼬리는 날카로운 방추형의 드라큐라형 메이크업을 하였다. 또한 얼굴에 검은색으로 점이나 문양을 그려 넣거나 입술을 검정색으로 칠하기도 했다. 이들의 메이크업은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미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강한 부정과 저항의

의미를 메이크업에 표현하고자 했다.

1980~1989년

1980년대는 매트한 느낌의 컬러가 강세를 보이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유행의 순환이 매우 빨라졌다. 1970년대의 자연스러움과는 달리 화려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로 변화하였으며, 눈썹은 두껍고 강하게 입술도 선명한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등 눈과 입을 모두 강조하였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브룩셴즈(Brooke Shields)’도 강한 눈썹 메이크업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 시대의 메이크업은 다양한 색상의 사용과 황금색, 노랑색 펄이 들어간 제품을 눈 주위에 발라 화려함을 더했다. 볼 터치도 펄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했고, 립스틱도 주황, 빨강 등 진한 색이 유행했다. 1980년대 중반 부터는 복고풍의 영향으로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가 모든 여성들에게 어필하였고 이와 함께 섹시하면서도 진한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팝가수 마돈나의 영향으로 에로틱한 란제리 룩과 육감적인 메이크업이 일반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메이크업을 자신의 건강함을 보여주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초반의 칼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피부에 더욱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따라서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와 같은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또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자연을 강조하는 에콜로지풍의 영향으로 살색, 복숭아색, 연갈색, 연핑크와 같은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한 내추럴 메이크업이 강세를 띄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림 13) 팝가수 마돈나

(ask.nate.com/qna/view.html?n=6429543)



(그림 14) 브룩 쉴즈

(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c...)

1990~1999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메이크업이 강조되기 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고풍의 영향으로 과거 1920~1930년대의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에서 1950년대의 과장된 아이라인이나 히피풍의 흐린 립 메이크업 등 과거 여러 가지 형태의 메이크업이 개개인의 개성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파티나 모임을 위한 화려한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T.P.O에 따라서 적절한 메이크업의 패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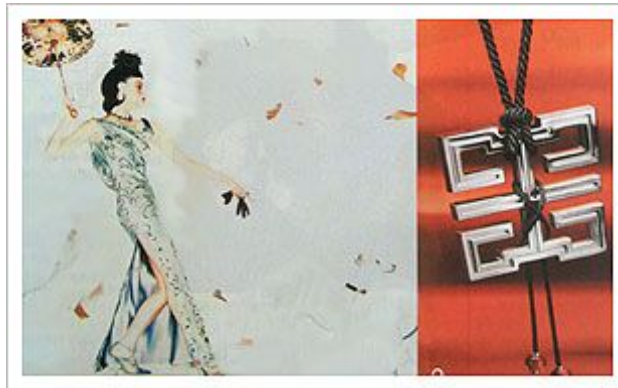
또한 10대에서 20대 초반 연령대를 중심으로는 누드 메이크업(Nude Make-up)이 유행했다. 누드 메이크업은 내추럴 메이크업 보다 더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진 않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피부의 투명감을 살리고 아이 메이크업도 화이트 컬러를 이용하여 신비스럽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입술화장도 립글로스만 사용하여 질감만

주는 스타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1990년대 말 무렵에는 미래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이 메이크업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면서 펠과 반짝이를 이용한 사이버 분위기의 메이크업이 인기를 얻었고, 나만의 독특한 메이크업이 중요시 되면서 ‘아방가르드’ 식의 메이크업이 속속 등장 했다. ‘아방가르드’식의 메이크업은 아직 일상생활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패션쇼장이나 패션잡지 속의 모델, 연예인 등을 통해서 자주 등장했다.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까지 다른 형식의 메이크업이 점점 확산될 추세로 보인다.

나) 동양

① 중국(中國)



(그림15> 왼쪽: 중국전통 복식 치파오의 응용작, 크리스찬 디오르 1997
~8 F/W, 오른쪽: 2002년 까르띠에가 출시한 ‘용의키스’
(hankooki.com 주간한국)

중국패션— 중국 전통 의상의 차이니즈 칼라, 목선에서 어깨, 겨드랑이로 이어진 트임, 스커트의 섹시한 슬릿 등은 이미 매 시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디자인 요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한국은 한복, 일본은 기모노가 있듯이, 중국은 ‘치파오’라는 전통 의상이 있다. 선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양의 치파오는 중국 여성들의 복장이다. 원래 남녀 공용의 박스형이었는데 현대화되면서 몸에 꼭 맞게 변

형태 섹시한 곡선을 가지게 되었다. 서양의 슬릿이 주로 앞이나 뒷면에 들어간 반면, 치파오의 슬릿은 옆선에 넣었는데, 더욱 은밀한 성적 매력을 준다. 치파오의 소재는 몸의 굴곡을 그대로 살려내는 실크가 많이 사용되어 고급스러운 의복으로 인식돼 있다.

이밖에 용과 나비, 연꽃, 한자 등 화려한 문양은 중국을 상징하는 주요 디자인 요소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색상도 중국의 전통을 최대한 살린다.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빨간색, 고결함을 의미하는 검은색, 청나라를 상징하는 푸른색 등이 강렬한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색들은 다채로운 색감의 자수 꽃무늬, 전통 매듭을 사용해 동양적인 느낌을 살려낸다.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부를 차지하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인구가 많고 기후로는 아한대서 아열대에 걸쳐 한족과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이러한 지역적 차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복식 양식이 존재하고 오늘날까지 변화, 발전되어 오고 있다. 중국의 화장이 중국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시기는 귀족문화가 발달한 수·당시대이다.

BC 6세기의 시경(詩經)에 보이는 ‘아미(蛾眉)’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에 관한 기록이다. 여성의 눈썹은 곤충의 더듬이처럼 가늘고 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부인들은 숯이나 목탄으로 눈썹을 그렸다. 이처럼 눈썹을 가늘게 그리는 풍습은 그후 2,000년 이상 전래되었으며, 특히 당대(唐代)의 회화나 시에 이러한 눈썹을 가진 여인이 자주 등장한다.

입술 연지나 백분도 미묵(眉墨)과 마찬가지로 예부터 중국에서 사용된 화장품이며, 이것을 합해서 지분(脂粉)이라고도 했다. 이 말은 BC 4세기의 문헌에 자주 나타나며, 그 시대의 유적에서 출토한 화장구에서는 그 잔유물이 나왔다. 초기의 백분은 연백(鉛白)이나 활석이었으며, 입술연지는 은화합물의 진사(辰砂),적토가 쓰였다.

한대(漢代)에 들어와 여성의 화장법은 급속히 발달했다.

14) 두산세계백과 encyber

기름에 개어서 만든 백분이 등장했고, 얼굴은 물론 목과 어깨에까지 백분을 발랐으며, 송진과 납을 섞은 포마드로 머리를 다듬는 것이 유행했다. 또 미목에 황토를 서서 그리는 황미(黃眉), 슬픔을 머금은 듯하게 그리는 수미(愁眉), 눈 밑의 백분을 일부러 벗겨서 운뜻하게 하는 체장(滯粧) 등의 독특한 화장법까지 고안되었다.

4세기경의 작품인 고개지의 여사잡도권(女史箴圖卷)에는 머리를 땀은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떤 여인이든 이마 주변에 일(一)자 또는 십(十)자의 황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마 주변의 머리칼을 정리하기 위한 화장법으로 액황(額黃)이라고 했다. 이 풍습은 한대 초에 몽골 등의 주변 유목민족에게 전해져 널리 중앙아시아까지 유행했다.

한대 말인 3세기 경에는 서역과의 교류가 성행하여 멀리 서아시아와 인도의 화장법이 중국 여성들에게 유행하게 되었다.

당대에 들어서 지분과 눈썹을 진하게 그리는 화장은 그 절정에 달했는데, 이시대의 특징은 백분을 칠한 후에 붉은색 연지로 붉은빛을 띤 홍장(紅粧)을 하는 것이었다. 입술도 한층 아름답게 치장했고, 궁중의 여인들은 다투어 흥분화장을 했다. 또 전대부터 이어 내려온 황액도 행해졌고, 눈썹을 그리는 일은 한층 성행했다. 그 밖에 인도에서 전해진 눈썹사이에 꽃 모양을 그리는 일, 양쪽 뺨에 보조개를 그리는 일 등이 성행해 여인의 화장은 완성된 정형을 이루어 농염한 것이 되었다. 당대 이후는 대부분 당대 화장의 답습이었으며, 이들 화장법은 그 재료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다.¹⁵⁾

한편, 중국의 경극에서의 화장법은 중국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예술로써 존재한다. 경극은 중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장 대표성을 띤 극의 종류로 장식성과 과장성이 있는 경극의 인물 조형과 얼굴에 그려진 도안은 인물의 성격을 알려주고 선악충간(善惡忠奸)을 가려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화려한 머리장식과 복장 등은 모두 경극의 독특한 특징이다.

얼굴에 칠한 색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 배역과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경극의 큰 특징이다. 게다가 연극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간단히

15)cafe. daum.net/back2eden/8m002

말해서 붉은색 얼굴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자를 대표한다. 검은색 얼굴은 중성으로 용맹하고 지혜로운 인물을 나타낸다. 푸른색 얼굴과 녹색 얼굴 역시 중성으로 민간영웅, 독립호객을 나타낸다. 황색 얼굴과 백색 얼굴은 부정적으로 나쁜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데 흉악한 자를 대표한다. 또한 금색과 은색 얼굴은 신비함을 나타내고 신, 귀신을 대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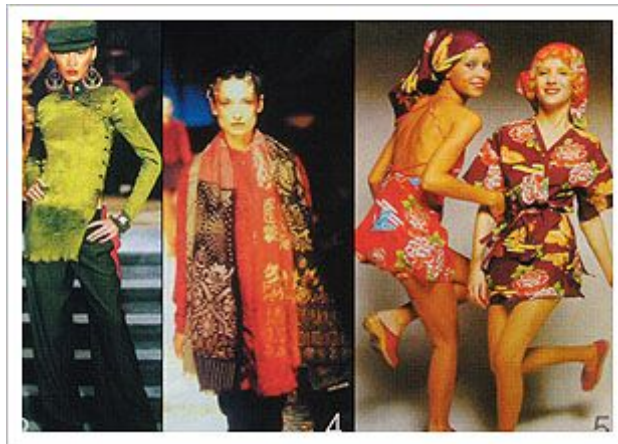
얼굴색 이외에도 얼굴 분장 묘사 형식 역시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상생(象生)은 흉독한 모습으로 분을 바르고, 온 얼굴을 흰색 분으로 바른 것도 있다. 그리고 단지 콧대, 눈언저리만 분을 칠한 것도 있다. 면적의 크고 작음과 부위의 차이에 따라 음흉하고 교활한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분을 칠한 면적이 크면 클수록 흉하고 독하다. 결론적으로 얼굴색은 성격을 대표하고 각각의 얼굴 분장법은 성격의 정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16) 상하이 저널(<http://www.shanghaibang.net>)



(그림 16) 중국 경극 분장
 (<http://www.shanghaibang.net>)

②일본(日本)



<그림17>왼쪽부터, 크리스찬 디오르 1998~9 F/W, 티벳의 영향을 받은 금박 스카프, 드레스 난
 노트 1997~8 F/W, 여름철 목욕한 후에 입는 일본 전통 복식인 유카타를 응용한 캐주얼웨어,
 겐조 1971 S/S. (hankooki.com 주간한국)

일본패션-일본의상 기모노의 언밸런스한 여밈과 실루엣은 1980년대 이후 빈번하게 사용 되었고, 게이샤풍의 헤어 메이크업은 컬렉션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일본풍의 젠(ZEN)은 미니멀 패션 뿐 아니라 건축, 인테리어 트렌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일본풍 패션은 기모노에서 힌트를 얻은 여밈의 상의를 짧게 디자인하고 기모노의 오비를 벨트처럼 활용, 실내복 유카타와 같은 가운 형태의 아이템이 많다. 무엇보다 일본풍은 섬세한 색감과 정교한 자수와 프린트가 특징인데 이를 가장 잘 표현한 의복이 기모노이다. 기모노를 가리켜 일본인들은 ‘감춤의 미학’, ‘걸어다니는 미술관’이라 한다. 맨살을 드러내지 않는 의복이고 여러 겹으로 감싼 옷감의 다채로운 문양을 비유한 것이다. 기모노의 특징은 허리에 칭칭 감는 오비이다. 오비는 자그마한 일본인의 체구를 둘로 나눠 날씬하고 길어 보이게 만드는 눈가림의 미학을 완성하고 있다.¹⁷⁾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북동쪽에서 남서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본 열도는 온대 계절풍의 기후로 기온의 변화가 크며, 겨울에는 계절풍과 여름에는 장마, 태풍으로 한랭한 겨울과 고온 다습한 여름의 기후를 가지고 있다.¹⁸⁾

일본을 대표하는 화장술로는 일본 전통 무대극 가부키(Kabuki)에서 배우들이 하는 페이스 페인팅과 기생들이 하는 화장을 들 수 있다.

일본 에도시대(惠圖時代, 1630~1867)에 민중의 연희로 탄생한 가부키의 화장은 역할의 나이나 신분, 성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부키 배우의 얼굴에 하는 분장의 ‘구마도리’와 ‘시로도리’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구마도리는 ‘아라고토’라는 연기 양식에서 비롯된 작품의 배

17) 박세은, 주간한국: ,〈패션〉오리엔탈리즘, 2004

18) 이순홍외, 상계서, p.106.

우들이 하는 분장이며 시로도리란 그 외 작품에서 지위나 신분이 높거나 잘 생긴 남녀 주인공의 배우들이 하는 분장을 말한다.

구마도리는 배우의 성격에 따라 얼굴 전체를 색으로 표현하는데 구마도리로 분장하는 인물의 성격은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성격적으로 불안하고 폭력적인 사람, 두 번째는 반역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세 번째는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역사나 소설에서 나오는 인물이다.

구마도리의 가장 대표적인 색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는데, 베니구마(紅隅)의 색, 아이구마(鹽隅)의 색, 차구마(茶隅)의 색으로 나눌 수 있다. 베니구마의 색은 홍색으로 가부키 작품중 아라고토 작품의 대표적인 구마도리이다. 베니구마는 주로 젊음과 정열을 나타내는 역의 분장에 사용된다. 아이구마의 색은 청색으로 적이나 망령 등의 어두운 성격을 표현하는 여자의 모습을 한 귀신 등 악귀 같은 여자나 마녀의 역을 분장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차구마의 색은 갈색으로 귀신등 요괴역 분장에 사용되고 구마도리의 색은 이외에도 녹색, 검정색, 황색, 자색, 금색, 흰색이 있는데 녹색은 광폭한 성격, 검정색은 강직과 정의, 황색은 음험함, 자주색은 침착함, 금색은 신이나 불인(佛人)의 경지에 이른 사람, 마지막으로 흰색은 교활한 악당을 나타낸다.

시로도리는 ‘온나가타’ 또는 지위가 높은 배역과 ‘마쓰바메모노’ 작품에서 나오는 고귀한 인물을 나타내는 흰색의 분장을 말한다. 또한 이 외에도 젊은 사람의 배역이나 잘 생긴 남녀의 배역도 시로도리로 한다. 또한, 그 표면의 질감을 비단결같이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얼굴바탕에 지분을 섞어 오히구로(齒黒)라는 것을 바른다. 이 외 다른 배우들도 분장을 하는데 극중 보통사람의 배역은 실제와 같은 피부색으로 분장을 하며 노인은 약간 짙은 분장을 한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의 역이나 익살꾼 역의 도케야쿠

(道化役)는 적갈색 또는 갈색의 분장을 한다. 반면 악인을 맡은 배역은 직선의 형태로 굵고 진하게 겹눈썹을 그리며 눈동자는 돌출할 것 같은 형태로 그리는 것 또한 가부키 분장의 특징이다.

‘구마토리’는 미술용어로는 ‘바림’ ‘선염(渲染)’을 뜻하는데 처음에는 연지를 바른 얼굴 위에 분을 바르고, 그 분위에 연지로 다시 선을 긋는 방법이다. 흰 분을 바른 안면에 붓으로 굵은 빨간 선을 그려서 혈간이나 근육의 긴장을 표현하고, 손가락으로 선의 언저리를 모란 꽃잎처럼 흰 살갓에 바림하여 풀어준다. 여백을 잘 살린 동양화의 수법과 통하는 일면을 가지고 있겠다.¹⁹⁾

19)조마리아, 韓·中·日 傳統劇에 나타난 扮裝 表現技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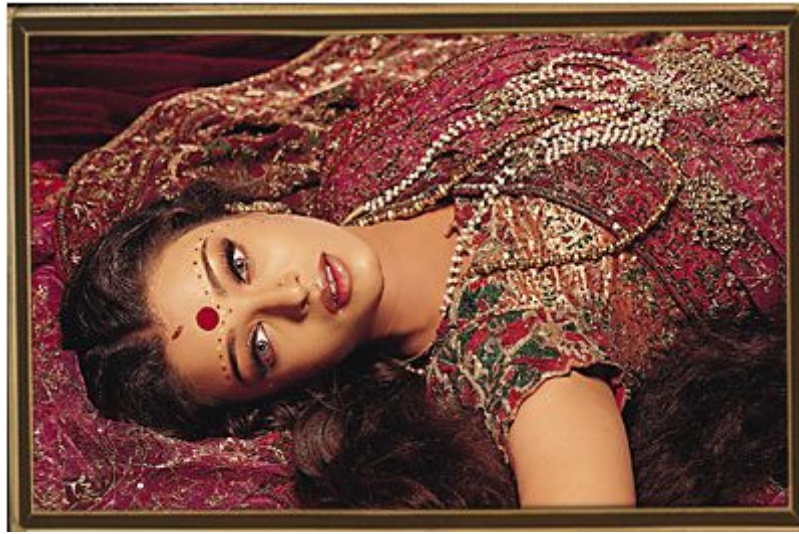


(그림 18) 일본의 가부키 화장



(그림 19) 일본의 가부키 화장

③인도(印度)



(그림20) 영화 'Devdas' 인도 유명배우 Aishwaraya Rai
'인도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 <http://cafe.daum.net/indiamovie>

인도 패션-최근 요가, 헤나 등 인도식 라이프스타일은 여성들 사이에서 빅 트렌드이다. 바느질을 하지 않은 인도풍 의상은 헐렁하면서도 의외의 섹시한 미를 뽐내는 스타일이다. 인도풍은 어깨와 머리에 쓰는 사리(Sari)와 배꼽티 격인 즐리(Choli)의 감추고 드러나는 에로틱한 아름다움과 터번, 페이즐리 문양, 화려한 문양, 화려한 장식 등으로 요약된다. 원색적인 색감의 인도풍 천은 끈으로 묶어 천연 소재로 염색하고 화려한 패턴 위에 반짝이는 장신구를 문양처럼 수놓거나 파라핀 염색인 바틱을 더해 손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인도풍의 유행은 액세서리에서 더욱 빛난다. 금속을 두드려 무늬 판을 만들고 각종 보석과 반짝이는 구슬을 매단 커다란 목걸이, 귀고리, 팔찌 등은 인도를 떠올리게 한다. 젊은 여성은 이마에 점을 찍거나 혼례 등 축복을 기원할 때 부적처럼 몸에 새기는 일회용 문신 헤나를 그려 아예 인도 여성처럼 치장하기도 한다. 20)

20) 박세은, 주간한국: ,〈패션〉오리엔탈리즘, 2004

인도는 복잡한 종교, 다양한 인종과 언어, 지역적인 이질성이라는 반 문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계급제도인 카스트에 의해 통일성을 유지해온 문화적 특성이 있으며, 이는 인도의 바디아트에서도 잘 나타난다.²¹⁾

인도는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로 오랜 메이크업 역사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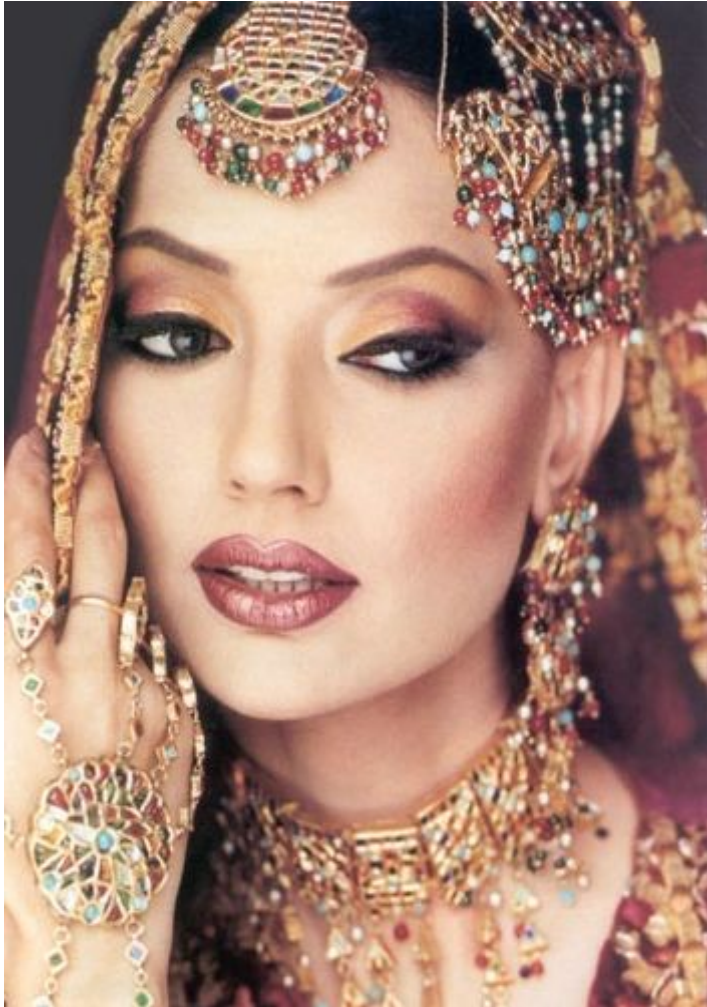
현대에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 헤나(henna)²²⁾는 A.D 4-5세기경 인도인들이 피부와 머리, 손톱을 염색하는 코스메틱 염료로 또 가죽과 실크, 울의 자연 염색제로 사용되어 왔고 헤나파우더, 헤나오일, 헤나타투, 헤나스텐실 등 헤나 제품은 인도의 축제와 종교의식, 그리고 패션 치장에 있어서 매우 친숙한 아이템으로 자리했다.

또한 매혹적인 인도 여성 및 남성의 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염료인 카잘(kajal)은 오랜 역사 동안 일종의 ‘아이셰도우’ 역할을 해왔고, 시르마(sirma) 서르마(surma), 카투카(katuka), 콜(kohl) 등 눈 주변에 음영을 주는 다크한 컬러 염료는 눈 가장자리를 강조하는 지금의 아이라이너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것에서 현대 스킨 메이크업의 시초가 형성 된 것이다. 이집트의 눈 화장이 그러하듯 인도의 눈 화장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화장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덥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기능을 함께 했다.

인도 이미지의 주조색은 헤나에서 표현되는 ‘갈색’과 같은 토속적인 색이지만, 화려한 꽃문양과 불교문양이 기하학적으로 나타내어지는 오브제 기법의 디자인들은 원색적인 색감과 조화를 이루어 화려함에 극치를 이룬다.

21) 조은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4, p.47.

22) 인도말로는 “헨디”



(그림 21) 인도의 메이크업
(<http://cafe.naver.com/mbsschool/104>)

④한국(韓國)

우리나라 화장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 가능할 만큼 화장과 화장품에 관한 기록과 유물이 뚜렷한 편이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고분 벽화가 그중의 하나로 수산리와 쌍영총 고분 벽화에서 고구려인의 화장을 추출하면, 수산리 벽화의 주인공은 귀부인이고 쌍영총 벽화의 주인공은 여관(女官) 또는 시녀로 보이는데도 모두 머리를 곱게 빗고, 눈썹을 짧고 뭉툭하게 그리고 다듬었으며, 그리고 뺨에 연지화장을 하고 있다. 또한 무인(無人)들은 머리카락을 뒤로 틀고 연지를 이마에 바르고 금당으로 머리를 꾸몄으니 신분 빈부의 구별이 없이 치장에 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인들의 화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나 일본 측 사서(史書) 및 삼재도회(三才圖會)에 일본이 백제로부터 화장품 제조 기술과 화장법을 배워 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진보된 화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백제인들이 옅은 화장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고도의 화장 기술의 표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신라는 백제, 고구려보다 다소 늦게 문화를 발전 시켰으면서도 화장 면에서는 두 나라 보다 앞섰다. 신라인들은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靈肉一致思想)에서 남성인 화랑(花郎)들도 여성들 못지않은 화장을 하고 귀걸이, 가락지, 팔찌, 목걸이 등 갖가지 장신구로 장식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귀천에 관계없이 여성들이 향낭(香囊)을 차고 컷불을 뚫어 귀고리를 달고 장도(粧刀)를 지녔다. 또한 잇꽃으로 연지를 만들어 이마와 뺨, 입술에 바르고 백분(白粉) 외에 산단(山丹)²³⁾으로 색분(色粉)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특히 692년에 한 승려가 일본에서 연분(鉛粉)을 만들어 주고 상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는 당시 신라의 화장품 제조 기술이 일본 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7세기경에 신라에서 이미 연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 화장품 발달사에 유래 없는 대 발명이었다. 신라를 비롯하여 고구려 백제에 4~6세기경 불교가 전래되어 널리 신봉됨으로써 청결이 강조되고 목욕이 대중화되었다. 목욕의 대중화는 목욕용품의 발달을 촉진 시켰는데 쌀겨 목욕으로 피부 미

23) 백합꽃의 붉은 수술

용의 향상되었다. 그러나 서민층에서는 팥, 녹두, 콩껍질 등으로 만든 원시비누, 즉 조두(豆)를 사용한 결과 날 비린내가 몸에 배어, 이를 가시게 하기 위하여 향수, 향료를 애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측 기록 <新唐書>에 신라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눈썹 그리기를 즐기지 않았으며, 김유신(金庾信)의 누이동생이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앞서의 설명과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여성들이 불교의 영향으로 옅은 화장을 했으며, 평면 화장에 그쳤던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²⁴⁾

삼국시대에는 화장품 제조 기술이 뛰어나 일본과 중국에 그 기술을 전하였고, 화장기술 역시 고도의 수준에 도달했었다. 화장뿐 아니라 옷 장신구 등 모든 생활이 사치에 흘러, 고려시대의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신라의 패망이 사치 풍조에서 비롯되었다 하여 사치금압(奢侈禁壓)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고려가 신라의 정치, 경제, 군사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데다가 문화와 생활 관습마저 계승하였으므로 신라의 화장경향 역시 계승 진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인의 화장을 중국 측의 기록으로 추측해 보면, 고려인들의 화장이 짙은 송(宋)나라의 여인들에 비해서는 옅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고려인들의 화장은 결코 옅거나 연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단지 불가(佛家)에서만 짙은 화장을 금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초에 제도화된 기생(妓生) 중심으로 짙은 화장, 즉 분대화장(粉黛化粧)이 성행하였다.

분대화장은 반지르르한 머리, 눈썹과 연지화장 외에 백분을 많이 펴 바른 것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짙은 화장이었는데, 기생을 분대라고 부를 만큼 기생의 상징적인 치장이었다. 분대화장 역시 평면적 화장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생들의 직업적인 의식화장이 조선시대에 까지 계승되고, 여염집 여성들은 옅은 화장을 고수하여 고려시대부터 화장경향이 2원화되고, 기생들의 분대 화장으로 인하여 화장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겨나기도 했다.²⁵⁾

24) www.make-up_artist.co.kr

25) <http://blog.naver.com/dodo1750?Redirect=Log&No=40005651914>

유교윤리 사상을 기본으로 여성의 화장을 부덕(不德)시 하고, 여성의 외면의 아름다움 보다 내면의 부덕(婦德)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도 화장의 개념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여염집 여성들의 생활화장과 기생, 궁녀 등 특수층 여성의 의식화장이 더욱 뚜렷해지고, 여염집 여성들의 생활화장도 평상시의 청결위주의 화장과 혼인, 연회, 외출 시의 화장으로 세분화 되었다.

개화기이후에는 일본과 청나라를 시작으로 프랑스를 주로 한 유럽으로부터 수입 화장품이 다량 들어와 크림, 백분, 비누, 향수등이 여성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 무렵에는 하얀 얼굴에 잔털 없는 반듯한 이마가 미의 상징으로 박가분을 물에 개어 하얗게 발랐다. 그 후 아랫 입술에 연지를 바르고 눈썹을 초승달 모양으로 그리는 화장법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22) 백 분

(www.make-up-artist.co.kr)



(그림 23) 한국의 조선시대 춘향이
(www.make-up_artist.co.kr)

2. 아트 메이크업(ART MAKE UP)

1)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과 특징

아트 메이크업이란 'Art' 와 'Make up'의 합성어로 미적 용도로 사용되는 메이크업에 예술성을 부여한 것으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독특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조형 예술의 한 분야이다. 즉, 아티스트가 가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인체라는 캔버스에 표현기법, 주제, 재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 볼 수 있다.²⁶⁾

아트 메이크업이란 인간의 육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의 세계를 구현하는 메이크업의 영역으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단순한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욕망과 개성을 참신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트 메이크업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문양이나 추상적인 화법, 사실적 묘사, 빛의 음영처리, 사진 기법을 이용한 연출 등으로 표현하여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트 메이크업의 형태는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이는 메이크업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트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이며 나아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수단으로 오늘날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²⁷⁾ 아트 메이크업의 활동분야는 영상매체(영화, TV) 속과 연극, 광고, 이벤트, 메이크업 쇼 등으로 볼 수 있다.

즉, 아트메이크업은 타고난 외모에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화려하게 표현하는 예술 작품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하고 시각적인 화려함과 디자인 및 색채의

26) 김양은, 'Art' Make up, 광문각, 2009, p.11

27) 김희선, '팝아트를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의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15권, 제3호, 2009, p.616

다양성을 표출하는 예술 분야이다.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욕망과 인간이 아닌 동물, 물체가 되려는 욕망을 표현하거나 상징이 되려는 욕망의 표현도 가능하다. 자신의 이미지와 생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색다른 이미지를 원할 때 강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적용되는 메이크업이 곧, 아트 메이크업 인 것이다.

아트 메이크업 표현기법의 기본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의 3요소- 점, 선, 면

<점>: 원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그 밖의 부정형 면이나 공간 내에서 안정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점을 줄지어 배치=>운동감, 방향성.

<선>: 점 다음으로 가장 단순한 요소, 폭이 넓어지면 면, 굵기를 더하면 입체 또는 공간.

직선=경직, 단순, 남성적인 느낌.

사선=동적, 불안정.

곡선=유연, 복잡, 동적, 여성적인 느낌.

<면>: 평면- 수직면, 수평면, 경사면

곡면-기아곡면, 자유곡면

면의 기본형태-정사각형과 원, 색

*색의 3속성-색상, 명도, 채도

<색상>:감각에 따라 식별되는 색을 구별하기 위한 색의 명칭.

<명도>:색이 가지고 있는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 주는 것.

<채도>:색의 맑고 깨끗한 선명도를 말하며 유채색에만 있다. 하나의 색 중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순색이라 하며 순색이 선명함을 잃고 탁해지면 채도가 낮아진다.

<무채색>:흰색과 검정,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기는 모든 회색 과정을 무채색이라한다. 무채색은 색상의 변화와 채도의 차이가 없으며 명도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유채색>:무채색 이외의 모든 색을 유채색이라 한다. 유채색은 명도의 변화와 채도

의 차이가 있다.

<한색>:파랑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색상으로 차갑고 냉정하며 개성적이고, 신비하고 우아하며 정적인 느낌을 준다.

<난색>:주황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색상으로 따뜻하고 명랑, 쾌활, 동적이며 젊어 보이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질감표현기법-글로시, 매트,

<글로시>:리퀴드한 질감에서 오는 촉촉하고 풍부한 느낌.

베이비 오일, 글리세린, 립글로스 등과 같이 광택있고 미끈거리며 윤기나는 느낌 표현. 먼저 인체에 원하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마무리 한 후 오일 등을 발라 섞이는 효과. 오일과 원하는 색상의 제품을 섞어서 사용. 맨 피부, 썬탠한 피부에 단독으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임.

<매트>:석고, 머드, 크림팩 피부에 바른 후 완전히 건조시켜 온도의 차이로 갈라지는 효과를 얻어 자연스러운 균열감 표현. 재료에 따라 딱딱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냄

<펼감>:화려한 느낌, 우주적인 느낌 표현.

크기가 다양한 색상의 펼의 경우, 조명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빛나 보임.

-젤 타입, 가루타입, 스프레이 타입

<금속질감>: 날카롭고 차가운 금속성의 느낌 금색, 은색, 브론즈 컬러 등.

빛을 받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금속성의 특성을 표현하는 금속성의 소품.

<직물문양>: 레이스나 여러 가지 망사를 이용 물감을 찍듯이 바르거나 문지름.

원래의 문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당기는 힘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문양 표현.

돌출되거나 들어가 보이고 꼬임 및 뒤틀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질감표현기법.

<해칭기법>: 많은 선을 그어 음영 표현.

가느다란 그물 같은 질감-가는 붓으로 사선을 긋고 그 위에 다른 방향으로 그어

주면 풍부한 질감효과를 낼 수 있음.

<스크레칭기법>:서로 색이 반대되는 불투명한 단색을 층이 겹치도록 고르게 잘 말린 후 날카로운 색이나 면도날로 맨 피부 위에 칠한 물감을 살짝 긁어내는 방법.

<점묘법>:강모 붓에 너무 묻지 않은 물감을 묻혀서 원하는 부위에 찍는 기법.

붓의 크기에 따라 섬세하거나 거친 효과를 낼 수 있음. 여러번 반복하여 겹치면 깊이 있는 질감이 남. 붓 이외에 칫솔 등으로 사용가능.

-**드라이 브러싱 기법**: 붓에 물감을 묻힌 후 손가락으로 물감의 반을 제거하여 깃털 같은 가벼운 질감표현 가능.

-**스킴블링**: 붓에 물감을 묻히고 남아도는 물감을 잘 닦아낸 후 이미 칠한 부위에 둥글리며 칠함. 물감을 뽁뽁하게 묻힌 붓을 납작하게 눌러 둥글리거나 살살 칠하거나 점묘하거나 줄을 그어 표현. 붓 이외에도 손이나, 형짚의 모서리 이용 가능.

2) 아트 메이크업의 유형

①모드 메이크업

모드 메이크업이란 패션 메이크업과 같은 의미로서 메이크업에 패션 및 예술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단순히 인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 토탈 패션의 요소로서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된 아트메이크업이라 볼 수 있다.²⁸⁾

28)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2009, p.222



<그림24> 슈에무라 131번째 모드 메이크업



<그림25> 2011년 여성동아 8월호
(<http://blog.naver.com>)

② 환타지 메이크업

환타지 메이크업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강하면서도 화려하고 과장되게 이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먼저 환타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터무니 없는 공상, 종잡을 수 없는 상상이나 즉흥적인 착상, 즉 계획된 디자인의 흥미로운 발명”을 뜻한다. 즉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구체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과 추상적인 소재를 표현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실제와 상상의 세계

를 교합하는 추상적인 존재, 동물들의 형상화, 현실과 초현실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표현되어 왔다.²⁹⁾

환타지 메이크업은 뷰티 메이크업보다 강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꽃, 새, 리본 등의 문양을 그려 넣거나 창의적으로 이미지화하여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으로 강하면서도 화려한 인상, 과장되고 특별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메이크업 기법이다. 이미 서양에서는 크고 작은 화려한 행사나 할로윈 같은 각종 파티에 응용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보편화 되어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이벤트나 광고를 위해서, 또는 연극, 영화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자주 사용 되고 있다.



(그림 26) 환타지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

29)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2009, p.224



(그림27) 환타지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

③ 바디 메이크업

20세기말 포스트 모더니즘적 요소가 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소외와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로인해 인간의 몸과 문신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인격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얼굴에서 신체로 까지 넓힌 미적 표현을 바디아트라고 한다. 바디페인팅은 이러한 바디아트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미술적 사조로 살펴보면 개념 미술로 분류된다. 또 사람의 몸을 재료로 하는 미술이며, 퍼포먼스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바디 페인팅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외형을 바꿀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인체에 표현하는 어떤 형태보다 화려한 색채를 크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디 페인팅은 무대와 조명, 컨셉에 맞는 소품, 음악, 특수효과, 모델의 포즈 등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종합예술로서, 표현주의적 요소가 강한 예술이다.

바디 페인팅은 ‘메이크업의 꽃’이라 불릴 만큼 웅장하고 화려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창작 예술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화폭에 그리는 그림은 평면적이지만 바디 페인팅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 행위로 기본적으로 신체의 골격을 먼저 파악한 후에 입체적인 몸의 곡선과 면을 최대한 살려 작품 성격에 맞는 이미지를 아름답게 표현해야 한다.

페이스 페인팅이란 말 그대로 물감을 이용하여 ‘얼굴 페인팅 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주듯 얼굴의 작은 부분에 그리거나 전체에 그리는 형태로 고정화 되거나, 객관적인 어떠한 규율화 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벤트나 축제, 파티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페이스 페인팅은 미학적 가치 보다 대중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8) 바디 페인팅
(<http://blog.naver.com>)

3.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그림 29) 오리엔탈 문양을
이용한 바디 페인팅의 예
(<http://blog.naver.com>)

1) 오리엔탈리즘의 일반적 개념

오리엔탈리즘은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exoticism)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오리엔트, 즉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동기 또는 제재로 삼은 것이다.³⁰⁾ 이러한 풍조는 183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오리엔탈리즘은 동방취미, 동방정서, 동방적 예술의 애호를 말하며,³¹⁾ 오리엔탈리즘의 용어에 내포된 오리엔트(Orient)는 “일출(日出) 지중해 동쪽을 말한다.³²⁾

또한, 당시의 서양인들은 ‘고대근동’을 문명의 의미를 내포하는 아침의 해처럼 힘차게 떠오른 곳이라 하여 ‘태양이 뜨는’ 혹은 ‘동쪽’의 의미를 가진 ‘오리엔트(Orient)라 부르게 되었다.³³⁾

30) 성향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6.

31)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p. 338

32) <동아원색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3, p. 286

33) <http://www.emerge.joins.com>

미국에서 표현하는 ‘오리엔트’의 의미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을 내포하지만 예로부터 유럽에서는 이집트와 시리아, 팔레스타인, 터키, 이라크, 이란 등을 포함한 ‘근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문화현상을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광범위하게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북부까지 포함한 동방 전체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³⁴⁾

오리엔탈리즘은 미국의 문학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W. Said 1935)가 1978년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부터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책에서 “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 즉 동양과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서양인의 경험 속에서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한 것이다. 동양은 단지 유럽에 인접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풍요하며 오래된 식민지였던 토지였고, 유럽의 문명과 언어의 원천이었으며, 유럽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타자 이미지이기도 했다. 나아가 동양은 유럽(또는 서양) 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³⁵⁾ 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양인들이 동양의 이미지를 편견과 왜곡으로 지배하고 재구성하여 위협하기 위한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서양의 스타일이라고 정의 내린 것이다.

오리엔탈리즘 속에 신비로운 동양의 이미지는 서양과 다른 이상향의 의미도 포함하는데, 서양의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인 이론과 사고방식에 대비되는 개념과 하나의 기호로서 인식되어지기도 한다.

결국, 오늘날에는 동양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여기고 동양의 가치관과 그 이미지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연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4) 남금희외, 오리엔탈 룩에 표현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2008, 제9권 제1호, p. 68.

35) Edward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p.15

서양의 구조적인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느낌의 미학과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오리엔탈리즘은 더욱 신비롭고 이국적인 이미지로 느껴진다.

1990년대에 전 세계 유행을 주도했던 서양의 미니멀리즘이 세기말로 접어들면서 동양의 신비주의와 접목되어 켄(Zen) 열풍이 불게 되었다. 켄(Zen)이라는 말은 선(禪)의 일본발음으로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2) 오리엔탈리즘 패션과 메이크업의 개념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의 극동 아시아의 문화를 말하는데 주로 불교 문화권을 가리킨다. 패션에서 오리엔탈 룩은 동양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화려한 색감, 섬세한 장식이 어우러진 스타일이다. 현대에는 흔히 차이니즈 칼라라 불리는 만다린 칼라, 용, 한자 문양, 매듭 단추, 기모노, 나무소재 샌들, 천, 허리띠, 자수, 붓으로 그린 듯한 전통 문양 등이 소개 되고 있다.

동양의 매력은 요가와 명상, 동양음식을 비롯해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서 그 멋을 뽐내고 있는데, 통이 넓은 헐렁한 인도풍 패션과 입체적 장식이 많은 에스닉 액서사리의 인기는 이미 정착 된지 오래다. 시즌마다 조금씩 보여 지던 중국풍 의상은 귀여움에서 섹시함으로 자리를 옮겼고, 가운데처럼 여미고 천 소재로 허리를 조인 기모노 형태의 상의도 허리는 잘록하게 가슴은 볼륨있게 강조하는 등 현대화되어 대중에게 인기이다. 또한 갖가지 프린트 물을 보면 트로피컬 무늬 속에서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중국, 일본, 인도풍 무늬가 눈에 띄게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과거 1960년대 히피즘은 에스닉 패션의 대중화를 이끌었는데, 반전. 반물질주의는 정신의 가치가 높은 3세계, 동방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고 소수

민족의 전통복식을 취하게 된다. 가깝게는 인디언, 남미의 의복과 장신구를 즐겼고 자연주의에 대한 동경은 멀리 아프리카의 색감과 장식을 가져오고 중동, 인도 등의 영향까지 흡수하게 된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중국의 문화 개방, 일본의 성장 등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80년대 들어 이세이미야케(Issey Miyake, 1938), 다카다 겐조 (Takada Kenzo, 1939) 등 일본인 패션디자이너의 활약으로 일본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알려진다. 1990년대초에는 <마지막 황제> <인도차이나> <연인> 등 동남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유행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복식이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다. 1990년대의 오리엔탈리즘은 보다 정신적인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비로움을 간직한 동양의 미가 트렌드로 부상하게 된다. 원래 오리엔탈리즘은 20세기 러시아 발레의 영향을 받아 폴 보아레가 처음으로 패션에 반영시켰다고 한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 지역 중국, 인도, 이란, 터키 등 동남아권의 동양 여인을 주제로 신비로움과 화려함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키도 오리엔탈 메이크업으로 말할 수 있다.

터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의 풍속을 모티브로 동양적인 신비를 나타낸 메이크업으로, 서양에서 중국의 변극 화장이나 일본의 가부키 화장에서 근원을 찾아 발전시킨 메이크업이기도 하다. 황금빛 컬러와 붉은색, 검정색, 화이트 색을 중심으로 사용하는데, 베이스는 하얗게 하여 창백하게 표현하며, 붉은 입술, 핑크빛 볼 등을 상징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다.

또한, 인도의 발리우드 메이크업,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의 느낌을 자아내는 이국적 취향의 원시적 메이크업 등으로 독특한 민속 고유의 특이한 개성을 보편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하나의 취향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36)

36) 이승주,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29

4. 오리엔탈리즘 메이크업- 나라별 특성

1)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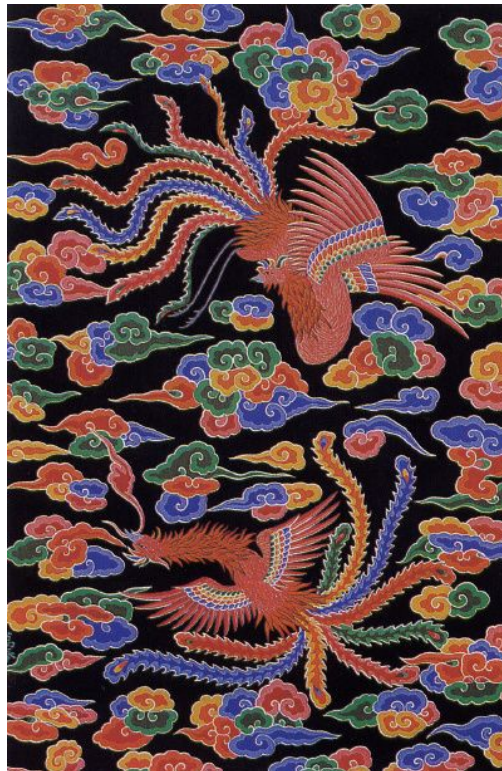
- 분을 칠한 듯 흰 피부에 부드러운 얼굴의 곡선
- 얇고 가늘게 둥글려진 눈썹, 넓은 눈두덩이에 가느다랗고 긴 눈매, 작게 오므라진 붉은 입술
- 혼례시 뺨에 연지 곤지 응용
- 색조화장 성행, 청색, 화황, 붉은색 사용
- 자연스럽고 연한 눈썹과 눈매표현
- 대표문양: 국화, 난초, 대나무



(그림30)2007 한국의 텍스타일디자인공모전 대상작
(blog.ohmynews.com/wanmok/160933)

2)중국

- 하얗게 분칠한 얼굴과 작고 요염한 입술
- 검은 눈썹으로 강하면서도 중국적 동양미 효과
- 손톱장식과 보조개 장식, 화전 등
- 대표문양: 용, 봉황



(그림31) 봉황문 단청

(www.homfree.com/serok80/?p=11374)

3)일본

- 일본의 게이샤나 가부키의 분장응용
- 눈꺼풀 전체를 채색하는 두꺼운 아이쉐도우와 일본 인형을 연상케 하는 하얀피부에 작고 오목조목한 눈, 코, 입의 연출
- 가늘고 검은 눈썹과 붉은색의 입술 및 아이라이너
- 대표문양: 벚꽃, 새, 매화



(그림32) 일본의 전통문양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ke1155...)

4)인도

- 이마에 점과 같은 장식
- 헤나 등 염료를 이용한 화려한 바디 장식
- 다크한 컬러 염료를 이용한 아이쉐도우와 아이라인의 강조
- 대표문양: 페이즐리, 망고



(그림33) 페이즐리 문양
(blog.daum.net/tsc99/18321732)

Ⅲ.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 1> 인도 메이크업의 장식 표현 기법

<작품1>

- 1) 주 체 : 인도 메이크업의 장식 표현 기법
- 2) 모 티 브 : 인도 여성들의 이마의 장식과 화려한 악세사리
- 3) 재 료 : 메이크업베이스/화운데이션/아이췌도우/마스카라/립글로스
/스팽글
- 4) 주 조 색 : PURPLE, GREEN, SILVER
- 5) 작품설명 : 오리엔탈적인 보색의 대비를 표현하면서 현대적인 빛의 화려함을
가미하여, 동양의 신비로운 모습과 서구적인 자유로움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위와 같이 화운데이션과 색조 메이크
업을 마친 뒤, 눈썹과 입술 부분에 실버와 보라계열의 미니 스팽
글을 약간의 끈적임이 있는 립글로스를 활용하여 부착시켰다.



<작품2> 드로잉과 오브제의 기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2>

- 1) 주 제 : 드로잉과 오브제의 기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 2) 모 티 브 : 고대 이집트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단순화시켜 도트형 형태
 의 아이메이크업 패턴으로 재 형상화한 작품
 인도풍의 다크한 아이홀과 아이라인을 강조한 기법
- 3) 재 료 : 메이크업 베이스/화운데이션/아이펜슬/아이쉐도우/스팽글
- 4) 주 조 색 : BLUE, BLACK, GREY
- 5) 작품설명 : 오리엔탈 이미지에서 대표되는 붉은색을 절제하고 청색의 이미지
 와 메탈의 느낌을 강조하여 차갑고 현대적인 이미지와 오리엔탈
 의 신비로움을 강조하였다. 아이 홀을 강조하는 스모키 메이크
 업 색감을 사용해 디자인으로 변형된 형태의 입체 효과를
 강조 하였다. 아이쉐도우를 사용하기 전 아이펜슬로 먼저
 색을 번지게 하여 발색력을 높였다.



<작품3> 동양적인 선과 서구적인 입체감의 조화

<작품3>

- 1) 주 체 : 동양적인 선과 서구적인 입체감의 조화
- 2) 모 티 브: 일본의 가부키 화장의 가는 눈썹선과 붉은 입술 강조
- 3) 재 료 : 메이크업 베이스/화운데이션/아이펜슬/아이쉐도우/인조눈썹
- 4) 주 조 색 : PURPLE/VIOLET/GREY/BLACK
- 5) 작품설명 : 동양적인 선과 서구적인 입체감의 조화로운 표현을 시도한 작품으로 아이메이크업과 볼 화장에 최대한 색명도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눈썹은 <작품 7>에서와 같이 왁스와 컨실러를 사용하여 가려주고 입술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채색한 느낌이 들도록 하기위해 립스틱 위에 밝은 파우더형 아이쉐도우를 얇게 덧칠하였다.



<작품4> 메이크업에 바디페인팅의 효과를 살린 작품.

<작품4>

- 1) 주 체 : 메이크업에 바디페인팅의 효과를 살린 작품.
- 2) 모 티 브 : 인도의 헤나 염색 효과에서 영감을 얻은 드로잉 메이크업
- 3) 재 료 : 메이크업 베이스/화운데이션/블랙& 브라운 아이라이너/펼 아이쉐도우
- 4) 주 조 색 : BROWN, BEIGE, GOLD, BLACK
- 5) 작품설명 : 오리엔탈 패턴에는 자연에서 얻은 동물과 식물의 문양이 많이 활용된다. 현대의 패션, 인테리어, 각종 아이템들에 주로 사용되는 문양을 메이크업에 직접 사용해 본 작품이다.
생동감 있는 구릿빛 피부를 강조하기 위해 중간톤보다 조금 어두운 베이스를 사용하였고, 파우더는 브러쉬를 사용하여 가볍게 사용하고 펄감이 있는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였다. 아이 메이크업은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드로잉 하였다.



<작품5> 일본 기모노 의상의 색감을 이용한 메이크업

<작품 5>

- 1) 주 체 : 일본 기모노 의상의 색감을 이용한 메이크업
- 2) 모 티 브 : 꽃문양과 염색된 색지의 컬러 패턴
- 3) 재 료 : 메이크업 베이스/화운데이션/아이펜슬/아이쉐도우/스팽글
- 4) 주 조 색 : RED,ORANGE,PINK,BLUE
- 5) 작품설명 : 원색적인 색감과 동양적인 아이템을 활용해 부드럽고 화사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표현한 작품.



<작품6> 중국과 일본의 분장적인 색감과 인도의 입체적인 장식 효과를 이용한 작품

<작품 6>

- 1) 주제 : 중국과 일본의 분장적인 색감과 인도의 입체적인 장식 효과를 이용한 작품
- 2) 모티브 : 인도 전통 의상의 시스루 룩의 느낌과 글로시한 펄감
- 3) 재 료 : 메이크업베이스/화운데이션/아이펜슬/아이쉐도우/깃털&인조 속 눈썹
- 4) 주조색: RED,YELLOW, PINK, GOLD
- 5)작품설명 : 동양의 원색과 몽환적인 신비로움을 강조한 작품으로 유사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태양의 느낌을 연상케 하였다. 아이홀에 빛을 강조하기 위한 골드 하이라이 터와 옐로 쉐도우가 메이크업의 포인트이며, 인조 속 눈썹에 패턴이 있는 깃털을 연결해 화려함과 환타지적인 느낌을 살렸다.



<작품 8> 바다 페인팅의 색채 표현기법

<작품 8>

- 1) 주 체 : 바디 페인팅의 색채 표현기법
- 2) 모 티 브 : 일본의 전통 부채 문양
- 3) 재 료 : 아쿠아 칼라
- 4) 주 조 색 : RED,YELLOW,ORANGE,WHITE, GREEN,BLACK
- 5) 작품설명 : 바디 페인팅 기법을 이용해 일본의 부채나 격자무늬 패턴을 디자인 하고 채색하였다. 색상은 원색적이면서 화려한 조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대조적인 색감을 배치하여 채색하도록 하였다.



<작품 7> 한국의 동양화의 여백의미를 살려 재구성한 디자인

<작품 7>

- 1) 주 제 : 한국의 동양화의 여백의미를 살려 재구성한 디자인
- 2) 모 티 브 : 백색 화선지 위에 그린 동양화의 먹선의 느낌을 강조하고 일본과 중국의 특징인 백색의 피부와 가는선, 작은 이목구비를 특징으로 나타낸 작품
- 3) 재 료 : 화운데이션/백색파우더/펜슬/아이라이너/인조 속눈썹/컨실러/립스틱
- 4) 주 조 색 : WHITE, BLACK, PINK
- 5) 작품설명 : 얼굴의 베이스를 피부가 보이는 선까지 가능한 밝게 깔고, 자연스러운 윤곽에 맞추어 셰이딩을 준다. 눈썹 부분은 인체용 왁스를 사용하여 모발을 납작하게 피부에 붙여준다.
인체용 왁스를 사용하여 피부에 밀착시켜준다. 그 위에 밝은색 컨실러를 사용하여 모발의 색을 가려주고, 파우더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톤을 맞추어 준다. 눈썹은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대칭이 되도록 날카롭고 정교하게 선을 그린다.
속눈썹은 풍성해 보이지 않도록 눈 아래쪽으로만 부분적으로만 붙여준다. 입술은 컨실러와 파우더를 다시 한 번 사용하여 윤곽을 지우고 꽃잎은 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안쪽부터 립스틱으로 찍어서 바른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동양의 문화와 예술이 어느새 세계화 되어, 현대사회의 패션과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동양적 이미지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론적 의미와 그 생성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메이크업의 동양적 이미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현하였는데, 이는 현대 메이크업의 발전과 흐름에 있어 동양적 이미지의 전통성과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어야 함과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오리엔탈리즘의 유행은 민속풍, 에스닉 룩의 역사와 같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며,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화장품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 표현법과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메이크업의 분야는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고 대중의 용도와 소비 양식에 걸맞게 세분화 되어 패션과 뷰티, 광고, 영화, 예술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가 된 것이다.

21세기의 화장의 경향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20세기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화장법과 오리엔탈리즘의 혼합된 형태의 화장은 위와 같은 범위에서 현대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리엔탈의 이미지를 작품으로 전개하였는데, 여기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리엔탈 이미지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날카롭고 간결한 선으로 표현할 때 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었다.

둘째, 오리엔탈 이미지의 표현을 하기 위해 색감은 원색적인 것을 위주

로 하되, 그 재료와 배색은 자유로우며 색상의 대비효과가 크고 과감할수록 그 특징을 강조 할 수 있었다.

셋째, 메이크업 뿐 만 아니라 헤어나 의상 기타 배경을 조화로운 형태로 매치시켰을 때 상호보완적인 이미지 상승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작품으로도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오리엔탈리즘 메이크업은 그 특징의 활용에 따라 일반 모드 메이크업에서부터 바디 페인팅적인 요소를 가진 아트 메이크업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패션이나 헤어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모티브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제언을 남긴다.

현대화 된 새로운 오리엔탈 이미지의 연구와 적용이 패션 분야에 뒤짐이 없이 재창조 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20세기 이전 오리엔탈리즘이 취미와 기호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이후에 동서양의 특징들이 혼합되기 시작하였듯이 메이크업 분야도 동양을 이해하고 재인식하는데 있어 세계의 변화와 맞물려서 시대를 초월하여 발전 되고 표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논문>

- 강민정, “패션 누드에 나타난 바디 페인팅의 특성”,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6
- 김은선, “한국 전통 문화와 중국의 분장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혜숙,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유형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성희, “아프리카 에스닉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경은, “오리엔탈리즘 패션의 컬러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연순, “21세기초 패션쇼를 통해 본 오리엔탈리즘의 표현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마리아, “韓·中·日 傳統劇에 나타난 扮裝 表現方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은숙,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은별, “20세기 화장 문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천정향, “오리엔탈리즘이 메이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국내 문헌>

- 천지연외,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2001
- 정현진, "미용문화사" 광문각, 2004
- 오수리, "아트 메이크업" 정담미디어, 학지사, 2011
- 김지연, "메이크업 판타지: 살아있는 얼굴에 관한 특별한 상상" 국제, 2008
- 이화순외, "(The) art of make up," 훈민사, 2010
- 이미자, "Professional art make up", 경춘사, 2009
- 오인영, "Art make up design", 훈민사, 2010
- 김양은, "'Art' Make up", 광문각, 2009
- 이윤정외, "MAKE UP IDEA", 청구문화사
- 한명숙, "마꾸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 남금희외, "오리엔탈 룩에 표현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07, 2008년
컬렉션을 중심으로-한국인인체예술학회지,
동신대학교 대학원, 2008
- 이미애외, "화장문화사" 신정, 2009
- 김희선, "팝아트를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의 연구"-2008~2009년 존갈리 아노
패션쇼를 중심으로-한국미용학회지, 제15권 제3호, 2009
- 김유순, "동양의 전통극 여성국극, 경극, 가부키의 화장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성균관대 출판사, 2003
- 김세영, "연극의 이해"서울:세문사, 1984
- 이원희, "일본문화입문"대구:영남대출판부, 1994
- 김학현, "歌舞伎" 서울: 열화당, 1997

정한기, “연극사”서울:신아사, 1988

현경채, “창극과 경극 가부키의 비교연구” 남원:국립민속국악원, 2002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idal15511/60057275990> 자료검색일 2011. 10. 5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hite_suha... 자료검색일 2011. 10. 5

heyjina.egloos.com/2014378 자료검색일 2011. 10. 5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hana2001...자료검색일 2011. 10. 5

ask.nate.com/qna/view.html?n=6429543 자료검색일 2011. 10. 5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ubetint...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shanghaibang.net> 자료검색일 2011. 10. 5

purple525.egloos.com/89763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blog.naver.com/ck1023ck/80018360015>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cafe.naver.com/mbsschool/104> 자료검색일 2011. 10. 5

www.make-up-artist.co.kr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blog.naver.com/dodo1750?Redirect=Log&No=40005651914>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emerge.joins.com>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cafe.daum.net/indiamovie> 자료검색일 2011. 10. 5

ask.nate.com/qna/view.html?n=9730708 자료검색일 2011. 10. 5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onis5044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itviewpoint.com/19385/529/trackback>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heidistudio.co.kr/bbs/view.php?id=study&page=1&sn1=&divpage=1&sn=of
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PHPSESS
ID=e15619a6a56817f7204429448bdd7363](http://heidistudio.co.kr/bbs/view.php?id=study&page=1&sn1=&divpage=1&sn=of
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PHPSESS
ID=e15619a6a56817f7204429448bdd7363) 자료검색일 2011. 10. 5

ABSTRACT

A study on Orientalism art makeup

Cho, Hye-ji

Department of Make-up Art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Culture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keup is an act of decorating oneself. From ancient there have been several purposes of makeup and the most mainly purpose regardless of generations is to redound to one's beauty and to prevent aging. In modern society the cultural importance of makeup is more and more growing to have industrial added value in addition to aesthetic aspect.

In the 20th century with more subdivided and burgeoning cultural industry, makeup within beauty industry has newly risen and stood out in areas such as fashion, advertising, theater, film and performing arts. In the 1990's the main trend of makeup was the returns to nature naturally and simply as reaction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which resulted from scientific civiliz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also it had interests in 'Orient' so called 'Orientalism' due to mental devastation in modern society. 'Orientalism' was not just prevalent i

n uniform way. The old history in 'Orient' and the original and distinctive makeup have been newly accepted since then.

'Orientalism' is eco-friendly and focusing on human. It has flat shape and various colors adhering its legitimacy and it would create more complex and creative images in harmony with western beauty.

This study has explained general concepts of makeup and 'Orientalism'. In addition it has investigated the history of western makeup in each era and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changes in eastern representative countries such as India, China, Japan and Korea. Also it summarizes 'Art makeup' which is expanding in artistic area with understanding of its concept and types.

Eventually one can apply each country's makeup images and techniques in more artistic way and understand makeup could be created again more creatively with interconnections between 'Orientalism' and modern makeup

This study consists of 4 kinds of chapters.

In chapter I & II introduction and intention of this study are explained in theoretical background.

In chapter III & IV it shows examples self-made and conclusion with proposals.